

제2359호 2019. 6. 2.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승천: 궁극적인 하느님과의 만남

성자께 승천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요한 16,28) 성부께 승천은 성자를 들어올리고 영광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에페 1,20) 우리에게 승천은 무엇입니까? 승천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희망입니다. 승천은 성부와 성자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승천으로 성자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백성을 약속의 땅 가까이 인도했지만,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 새로운 모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께로 건너가고자 그분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마침내 아드님을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성자의 올려지심을 보면, 아버지께 가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 낼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결국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승천은 밝혀 줍니다. 성자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오하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6-8) 그렇기에 성부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성부께서 들어올리시어 성부께 돌아가신 성자께서는 아버지와 만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이 만남이 우리가 믿는 궁극적 구원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불교가 원래 구원으로 제시한 것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얻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제시하는 구원은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유일신을 믿지만, 구원이란 신과의 만남이 아니라, 탐스런 열매가 열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는 것과 같은 것, 곧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구원은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얻는 것, 하느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하늘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1 코린 2,9). 하늘에서는 하느님 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연우 스테파노 신부 | 교구 미디어국장

주일 진례

- 입 당 송**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 본 기 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 제 1 독 서** 사도 1,1-11
- 화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제 2 독 서** 에페 1,17-23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복 음** 루카 24,46-53
- 영 성 체 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6. 슈렉과 피오나

I used to live alone before I knew you.
I've seen your flag on the marble arch. Love is not a victory march.
It's a cold and It's a broken Hallelujah.*

- 레너드 코언

영화 슈렉, 흉측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슈렉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지 못해 세상과 벽을 쌓고 혼자 살아갑니다. 왕이 되기 위해 피오나 공주와의 정략 결혼을 피하는 파과드 영주는 공주를 소중히 존재가 아닌 쟁취할 소유물로 여깁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상대를 억압하려 들거나 소유하려는 것 또한 상대의 생명력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력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뒤섞이여 함께 살아가는 현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다른 색이 모일수록 삶이 어두워집니다. 보이는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면, 그 곳에는 본질인 하느님의 빛이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색빛을 발견해내는 이는, 자신 안에서도 색빛을 발견합니다. 서로 다른 색빛이 함께할수록 삶은 밝아집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 둘이 한 몸이 된다.

- 창세 3,18,23,24

나의 존재가 소중함을, 너의 존재도 똑같이 소중함을 알고, 함께, 하나가 됩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 사랑은 승리의 행진이 아닙니다.
차갑게, 부서지게 (보여도,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면.) 알렐루야.

다복술 나눔 DAY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머나먼 아프리카의 최빈국 말라위에서 보내온 소박한 그림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좋은 감상 부탁드립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복지관의 하늘을 바라보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다양하고 저렴한 물건이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오세요! 편하게 다녀가세요!!

일시: 2019년 6월 5일(수) 낮 11시 ~ 밤 9시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1층 운동장, 강당

대상: 이용자 및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목적: 지역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자원 마련

내용: 바자회 및 일일주점, 개관기념행사

티켓계좌: 경남 207-0016-0451-06 마산장애인복지관
후원계좌: 경남 513-07-0183548 마산장애인복지관



“제왕으로 가는 길을 뚫어”
마산장애인복지관
MASA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제195차 마산 ME주말

| 제195차 마산 ME주말이 4월 26일부터 2박 3일동안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총 16쌍의 부부와 사제 1명(임성섭 유스티노 신부: 옥포성당)이 참여하였다. 비신자 부부의 변화가 참여자들에게 더욱 감동을 주었다.

● 마산 레지아 청년단원 피정

| 마산 레지아(담당: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 단장: 강동주 세례자 요한)에서 5월 18일에서 19일 청년단원 피정을 산청 성심원에서 실시하였다. 마산 레지아에서 처음 실시한 청년단원 피정이었다. 작은형제회 김정용 루피노 수사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피정을 진행하였다.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회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 박창균 시메온 신부, 회장: 한일문 하삼바오로)는 5월 17일 교구청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와 연수를 하였다. 이번 모임에서 신입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고, 이주사목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하였다. 이주사목담당 김종원 히지노 신부는 이주사목에 관한 교황령 '이민 가정(Exsul Familia)'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 함양성당 본당의 날 행사



| 함양성당(주임: 신희열 요셉 신부)은 5월 19일 고운체육관에서 본당의 날 행사를 열었다. 신자 260여 명이 참석하여, 오전에는 미사를 봉헌하고, 오후에는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창원 1, 2, 5 꼬미시움 2단계 기사교육



| 마산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담당: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 단장: 강동주 세례자 요한)는 5월 11일 창원 1, 2, 5꼬미시움 단원을 대상으로 2단계 기사교육을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였다. 이형수 블라시오 몬시뇰은 '레지오의 참된 영성 생활' 강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묵상찬미와 미사의 시간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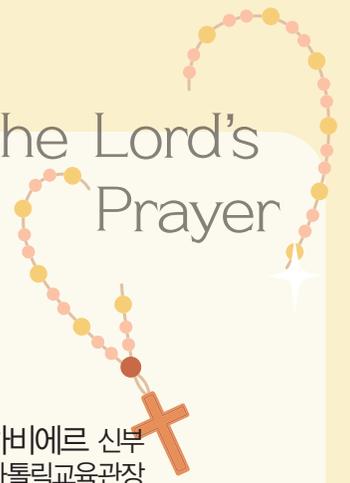
● 진영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봄소풍



| 진영성당(주임: 허철수 미카엘 신부) 초등부 주일학교는 5월 11일 거제 망종죽 테마파크와 포로수용소로 봄소풍을 갔다. 진영성당 주일학교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올해 초등부 학생이 30% 증가하여 60명이 되었다. 현재 12명의 친구들이 첫영성체를 위해 열심히 공부중이다.



The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 묵상

이 청준 F. 하비에르 신부
마산가톨릭교육관장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화내시는 아버지로, 우리 잘못을 감시하시는 경찰로, 우리를 벌주 시려는 무서운 판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왜곡된 하느님 상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빠 하느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요한 1,18)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을 새롭게 알려 주십니다.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아버지를 소개해 주십니다.(마태 5,45) 참빛이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요한 1,1-15 참조)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로마 8, 14-15)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단순 소박하게, 자녀다운 신뢰로, 기쁨에 찬 자신감을 지니고, 겸손한 대담성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778 참조)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란 아버지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나자렛 예수 상권』 223쪽) 구원 경륜의 결정적인 순간들에(교리서 2808), 먼저 모세에게(상동 2810, 2858항), 다음에는 외아드님을 통해서(교리서 2812) 알려주신 당신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드러냅니다.(교리서 2858항)

아버지의 나라: 하느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며,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십니다.(교리서 2816 ; 『나자렛 예수 상권』 227쪽) 하느님 나라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감싸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마르 1,13 참조)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숨결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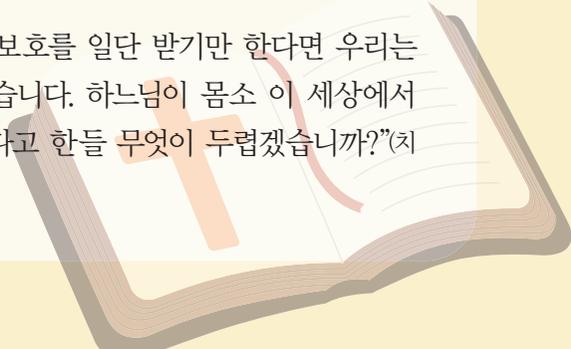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 데 모으는 계획입니다.”(에페 1,9-10)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시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히브 5,8 ; 참조 요한 4,34 ; 6,37-40)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이 간청은 나눔과 연대를 위한 초대입니다.(교리서 2831~2833 참조) 그리고 영적인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은 하느님의 말씀과 성찬으로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마태 4,4 ; 아모 8,11 ; 가톨릭교회교리서 2835~2837 참조)

끝까지 용서함: “잘못은 인간이 저지르고, 용서는 하느님께서 하신다.”(알렉산더 포프)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끝까지(공동번역: 극진히) 사랑하십니다.(요한 13,1)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십니다.(마태 18,22 ; 루카 23,34) 용서는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자유의 행위입니다.

유혹: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히브 2,18 ; 참조 히브 4,15)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악을 거슬러 보호해 주시라고 청을 드려 그 보호를 일단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악마와 세속이 꾸며낼 수 있는 온갖 악에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몸소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무서운 것이 솟아난다고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치프리아노 『주님의 기도에 대하여』, 27 ; 참조 『나자렛 예수 상권』 254쪽)



“드라큐라의 고민”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40여 년 전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드라큐라가 피를 빨아 먹으려 할 때 피하는 방법. 첫째, 십자가를 들이댄다. 둘째, 마늘을 들이댄다. 셋째, 은 제품을 들이댄다. 그리고 은 칼이나 은 총알로 쏘아 죽이거나 심장에 말뚝을 박아서 죽인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마늘, 은 제품을 평소에 지니고 다니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목에 때를 씻지 않으면 돼”라고 했습니다. ‘드라큐라’는 목에 송곳니를 꽂고 피를 빠는데 때가 있으면 더러워서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빨대로 빨아먹으면 어찌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온 지구가 플라스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생태계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양을 횡단하는 새나 거북이, 돌고래 등이 플라스틱을 먹고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빨대가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쓰지만, 우리의 편리함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물을 죽이는 살생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섬뜩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한 번에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한 가지 실천으로 조그마한 변화를 불러 올 수 있고, 그 변화에서 세상은 하느님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미약하지만 빨대 쓰지 않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것이든 환경을 위해서 한 가지 실천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배짱 좋은 골리앗

영혼의 뜨락
교구 가톨릭 문인회

김정권 시문 • 수필가

그 옛날 내가 젊었던 시절, 해외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고 김포 공항을 통해 출국한 일행은 세 사람이었다. 7시간 반을 날아서 주재국에 도착하였고 입국 심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두 동행인에게 작은 문제가 생겼다. 입국 신고서 종교란(欄)을 비워 놓았던 것이다. 공항의 입국 심사관이 따져 물었다. “왜 종교란을 비워 놓았습니까?”라고. “종교가 없다”고 답하자 그다음 말이 걸작이다.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얼빠진 사람이 있냐는 듯 힐난조로 되물었다. “그러면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정신이 관심을 두는 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뭐라도 적으십시오.” 다그치듯이 재촉해서 두 사람은 부득이 불교라고 적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입국 첫날부터 두 사람은 불만이었다. 남이야 종교가 있건 없건 자기가 무슨 상관이나고...

「정상에서 만나다」의 저자 지그 지글러(Zig Ziglar)가 가정기도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6척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전쟁하자고 외쳤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 나무 뒤에, 숲속에, 굴속에 숨었단다.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나이가 열일곱 살

밖에 안 되는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설교가 이어졌을 때 갑자기 아들이 설교를 중단시키며 말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지글러가 의아하여 물었다. “아니!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니?” 아들이 말한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느님이 함께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데요?” 지글러는 무릎을 치며 말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골리앗처럼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 의지하며 사는 무모하리만큼 배짱 좋은(?)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하느님께 종속을 선언한 사람이 있구나.”

그때 공항 입국 심사관은 아마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으며(The Human brain cannot sustain purposeless living),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신(神)을 믿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일찍 깨달았으리라! 그 믿음이란 탄생의 울음으로 시작된 인생이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은총이란 것을...

故 이승석 프란치스코 신부 9주기 추도미사

일시 : 6. 8.(토) 11:00
 장소 :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故 정삼규 몬시뇰 20주기 추도미사

일시 : 6. 15.(토) 11:00
 장소 :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교통 : 당일 10:00 월영성당 앞 버스 출발
 문의 : 정영규 신부 055.224.2009
 ※ 미사 후에 점심 준비 함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 samok1@cathms.or.kr
 문의 : 사목국 055.242.6776

교구·분당

■ 사제단 체육대회

일시 : 6. 3.(월)~4.(화) 1박2일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 교구 성격특강

주제 : “여러분을 다스릴 분은 주님이십니다.”
 강사 : 김영선 루시아 수녀
 일시/장소 : 6. 3.(월)/ 칠암성당(거제, 진주지구)
 6. 4.(화)/ 명서동성당(창원, 마산지구)
 시간 : 10:00~13:00(성경, 필기도구)
 강의료 : 5,000원(당일판매 가능)
 신청 및 문의 : 성경부 055.249.7025~6

■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 진주지구

일시 : 6. 5.(수) 14:30
 장소 : 신안동성당
 문의 : 사목국 055.249.7021~3

■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 거제지구

일시 : 6. 7.(금) 14:30
 장소 : 고현성당
 문의 : 사목국 055.249.7021~3

■ 장례지도사 4차 교육

일시 : 6. 7.(금)~9.(주일) 2박3일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 사회복지국 055.249.7041~2

■ 신앙대학 심화과정

일시 : 6. 8.(토) 13:00
 장소 : 교구청
 문의 : 사목국 055.249.7021~3

■ 청소년 리더쉽 연수

일시 : 6. 8.(토)~9.(주일) 1박2일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 청소년국 055.249.7065

■ 예비신학생, 여성소자 모임

일시 : 6. 9.(주일) 10:30
 장소 : 교구청
 문의 : 성소국 055.249.7061

■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 김영옥(에타타), 김복희(안나)
 맹혼 : 김정훈(도미니코) 신부
 장소 : 교구 법원
 마감 : 6. 17.(월)까지
 문의 : 교구 법원 055.249.7111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임

대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시 : 매월 첫주 (월) 10:00~14:00
 장소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의 : 055.237.6487

■ 가톨릭문인회 시민 인문학 특강

일시 : 6. 5.(수) 18:30
 장소 : 마산교구청 강당
 주제 : 정신분석비평 입문 (라캉의 도독맞은 편지를 중심으로)
 강사 : 배대화(현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의 : 담당자 010.4477.7245

■ 소성리 평화바람 미사

교구별 순회미사 -매주 월 14:00
 일시 : 6. 10.(월) 14:00
 장소 :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문의 : 정평위 055.261.8201

■ 196차 ME 주말 안내(2박 3일)

일시 : 6. 14.(금) 19:00~16.(주일) 17:00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 197차 ME 주말 : 7. 19.(금)~21.(주일)
 ● 198차 ME 주말 : 8. 30.(금)~9. 1.(주일)

수도회

■ 콜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시 : 6. 9.(주일) 14:00~17:00
 대상 : 만23세~만38세, 남·여
 장소 :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문의 : 02.929.4841 www.columban.or.kr

■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율레길·오름 트레킹
 일정 : 6. 10.~13.(추자도) / 6. 16.~19.(추자도) / 6. 22.~24. / 7. 1.~3 / 7. 6~8.

*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과 여름해변 또는 우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일정 포함)

일정 : 7. 19.~21. / 7. 27.~30. / 8. 1.~4. / 8. 6.~8 / 8. 10.~13. / 8. 15.~ 18.
 문의 : 02.773.1463 / 064.756.6009

 <p>라파엘여행사</p> <p>◆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오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아태리얼주 9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 4일 (13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p> <p>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p>	 <p>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p> <p>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p> <p>원장 범진선 다니엘</p> <hr/>  <p>수맥홍(홍)침대</p> <p>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p> <p>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p>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p> <p>마산 예경병원 (일교을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p> <hr/> <p>(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p> <p>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p> <p>대표 김중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p>	<p>가톨릭 트러블</p> <p>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p> <p>439만원 (10월 1일, 인솔자, 신부님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p> <hr/> <p>우리농 직매장 2호</p> <p>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p> <p>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p>
--	---	--	---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올레길, 마사, 기도, 강의**
 일 시 : 6. 14.~16./ 6. 19.~22./ 6. 25.~28./
 7. 5.~7./ 7. 10.~13./ 7. 28.~31.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 6. 15.~16./ 7. 6.~7.
 3박4일 : 7. 11.~14./ 7. 27.~30.(청년)
 8박9일 : 6. 24.~7. 2./ 8. 7.~15.
 40일피정 : 9. 16.~10. 25./12. 13.~2020. 1. 21.
 장 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 의 : 010.4906.5722/ 031.953.6932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 편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 solace@cathms.or.kr
 문 의 : 055.249.7002~3

■ **부산교구 <혼인강좌> 교수 초빙**
 분 야 : 심리학 및 유관 학문
 서 류 : 이력서, 교적, 박사학위증 사본
 제 출 : 7월 말까지 / 우편접수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8-7 가정사목국
 문 의 : 부산교구 가정사목국 051.441.3500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 비 용 : 65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문 의 : 송진욱 신부 010.3645.9028

■ **뮤지컬 <영웅> 창원 가톨릭신자 전석 20% 할인**
 기 간 : 6. 21.(금)~23.(주일) 금 20:00/
 토 15:00, 19:00/ 주일 14:00
 장 소 : 성산아트홀대극장(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티켓가격 : VIP: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전화예매
 가능, 티켓 수령시 주부지참 必)
 예약 및 문의 : (주)컬처박스 02.745.1555
 (월~금 10:00~17:00)

 **워하고 살았노, 간만에 함 볼까?**
 가정사목국에서 아버지·어머니학교 후속프로그램 차원에서 총동창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 시 : 6. 29.(토) 09:00~16:30
 장 소 : 창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대 상 : 아버지·어머니학교 졸업생 및 가족
 교육비 : 1인당 1만 원
 입금계좌 : 농협 301-0003-8497-31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 청 : 6. 21.(금)까지 (선착순) 본당사무실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교구 성령기도회 낮피정**
 일 시 : 6. 17.(토) 13:00~17:30
 장 소 : 월남동성당
 주 제 : 영적 내적 치유
 강 사 : 이영숙 베드로 수녀(삼성산 수도회)
 미 사 : 이동진 안셀모 신부(교구 성령쇄신담당)
 문 의 : 010.5072.5612

기 타

■ **마산의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집**
 기 간 : 상시 (평일 및 토요일)
 장 소 : 도림 마산의료원 (5층)
 분 야 :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영적지지, 목욕, 발마사지, 간병가족위로, 사별가족 돌봄)
 문 의 : 055.249.1541, 010.3850.6722

■ **제주 힐링 성지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 시 : 7. 12.~14. / 8. 9.~11. / 9. 17.~19./
 10. 15.~17./ 11. 5.~7.
 장 소 : 제주성지 6곳 (성지해설)
 문 의 : 064.805.9689
 해외성지순례 : 10. 3.~9. 그리스성지순례 7일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6. 3.(월) 19:00	월남동성당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루24.31)	이병우 신부(루카)	이병주 신부(시몬)	010-5072-5612
창원지구	6. 3.(월) 19:00	반 송 성 당	제6강 : 성장의 비결	김명희(도미니카, 서울교구)	안찬모 신부(이나시오,삼위일체)	010-9969-5340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마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6. 8(토) 14:00, 6. 9(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3015-1773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 성소국장 신부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품격 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만원
 Asiana Airlines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만원
 KOREAN AIR

10월 12일 **파티마, 루르드, 바뇌 성모발현지 순례** 13일 399만원
 Lufthansa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본도여행사 **02.852.8525**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표,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베트남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부산 or 대구 출발 직항편 매일확보 / 전문 교우가이드 배치

1. 북부 순교성지 + 하노이/하롱베이 3박5일 (110만원~)
2. 중부 성모발현지 + 다낭/호이안 3박5일 (110만원~)
3. 북부 + 중부 성지 핵심일정 포함 4박6일 (130만원~)

< 본당 및 신심단체 환영, 소규모 그룹 연합(상시 모집), 별도일정 협의가능 >
투어찬스 대표 이승준 요한 보스코 (마산 삼계) 010-2992-4785

savin 예 중, 예 고 음 대 / 입 시 반
 성악 스튜디오 취 미 일 반 이 태 리 유 학 소 그룹 (3명)
 T. 070. 4384. 8730
 blog.naver.com/franz32
 조 현 울 프란체스코
 마산회원구 양덕1동 주민센터 맞은편 2층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유사종교의 잘못된 이론: 외국계열의 분파

미제美製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다. 외국에서 온 것은 다 좋고, 미제를 가진 사람들은 어깨를 펴며 으스스대던 시절이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서 낯선 땅의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 낸 물건과 그들의 언어에 대한 동경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여러 나라로 뻗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러한 진취적인 발걸음을 ‘다른 나라(外國)’가 아닌 ‘그들의 나라’, ‘그들만의 왕국’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종교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 외국에서 창립된 이단 분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생겨나 한국에까지 유입되었다.

각기 다른 그들만의 특별한 이론(교리)을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분파를 창설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들은 이미 미국 사회에서 강조되어 왔던 그리스도교 믿음에서 착안했다. 미지의 땅을 발견한 탐험가 콜롬보(C. Colombo)는 그 땅을 ‘하느님께서 이끄신 새로운 나라’라고 믿었다. 또한 미대륙의 발견 이후 끊임없이 유입된 유럽인들 가운데에는 영국의 종교적인 박해로부터 탈출하여 정착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미대륙은 하느님께서 주신 희망의 땅이었기에 그리스도교 믿음 가운데 ‘종말에 대한 희망’을 더욱 강하게 부각했다. 그러나 미국 땅에서 가진 희망을 극대화하여 해석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창의적일 수 없는 성경의 해석을 ‘창의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분파들을 창립하게 된다.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 회관’이라는 교회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듯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왕국은 성경에 쓰여 있고 예견되어 있으며 그 왕국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 종말의 날짜를 예언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립자 러셀(C.T. Russel)은 1874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다시 오셨다(재림)고 주장하며, 그들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1914년에 멸망할 것이고, 자신들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다스리시는 왕국에서 구원을 누리리라고 예고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천년 왕국’이며 종말의 개념이다. 예고된 날짜와 더불어 그들에게 사람들을 선동할 수단인 된 것은 요한 묵시록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인 ‘십사만 사천’(묵시 7:4)을 상징이 아닌 숫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14년, 멸망은 일어나지 않았고 여호와의 증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수도 십사만 사천을 넘겼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날짜를 예언했고, 그 헛된 예언에 걸맞게 자신들을 추

종하는 사람 중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십사만 사천 중 한 명이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또 다른 조건을 내걸었다.

미국에서 출생한 윌리엄 밀러(W. Miller)와 엘렌 화이트(E.G. White)로부터 이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창립자(교주)인 안상홍이 활동하기도 했다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짜에 대한 예언과 실패를 반복했다. 또한 잘 다려진 검은 양복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가슴엔 플라스틱 이름표를 부착하고, 팔엔 성경과 비슷하게 생긴 두꺼운 책 하나를 끼고 거리를 지나다니는 외국인이 선전하는 이단 분파인 ‘몰몬교’의 창립자 요셉 스미스(J. Smith) 역시 1835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재림 때 나타날 왕국은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며, 자신들의 집단에 속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한다. 이는 곧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써 우리에게 펼쳐졌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성의 나라가 도래하리라는 희망의 기도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816항 참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짜’를 알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선택된 집단에만 임하시고 다른 이들은 모두 파멸로 이끄시기를 기도하는 것 또한 결코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힌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믿음으로 구원의 희망을 열어주셨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성찬의 식탁을 통해 당신의 몸과 피로 찾아오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하신 것과 같이 천상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인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따라서 종말은 ‘멸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천상 하느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분리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교회는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짜과 시작’(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5항)이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발생한 분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에 정착된 분파들 역시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심어 넣어야 자신들의 주장들이 호소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여, 옳바르지 않은 교리로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다른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리에서 다가오는 그들의 낯선 목소리 또한 우리의 귀한 신앙을 방해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외국 것(미제)’임을 기억해야 하겠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량으로 여깁니다.”

(로마 5:2)